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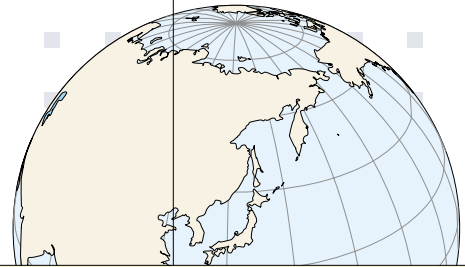


이화소식

NEWS^{HA}

2004년 3월 19일 발행 제63호

발행인·신인령 | 편집인·정하영 |
편집·홍보과 | 발행·이화여자대학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전화·3277-2114, 3277-2047~9
팩스·364-8011
www.ewha.ac.kr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7장 33절)

본교, 세계적 석학들로 국제화 자문단 구성

‘세계속의 이화’ 길잡이로



본교 명예석학교수로 위촉된
로버트 스칼라피노 · 웬디 그램 ·
오마에 겐이치 교수 (왼쪽부터)

본교가 최근 세계적인 석학들을 대거 명예석학교수(Honorary Distinguished Professor)로 초빙, 이들로부터 국제화 전략을 자문받기로 했다. 이는 특성화 영역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본교의 국제학 부문은 물론, 전체적인 교육 역량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의 국제화 자문단으로 위촉된 세계 석학들은 총 9명으로 이중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미 버클리대학 명예교수), 세계적인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교수(미 UCLA대학원 정책학부 교수), 미 선물거래소 위원장을 지낸 웬디 그램 교수(미 조지 메이슨 대학 규제정책연구소 소장) 등은 최근 본교를 직접 방문, 신인령 총장으로부터 명예석학교수 위촉장을 받았다.

또한 오마에 겐이치 교수와 웬디 그램 교수는 각각 3월5일(이화·SK텔레콤관)과 3월12일(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사이버 시대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



토마스 비어스테커 교수



카터 에커트 교수



조디 윌리엄스

청년 정신’ ‘사탕수수에서 선물 거래까지’라는 제목의 특강을 개최, 많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들 외에 이화 국제화 자문단으로 초빙된 석학들은 지뢰반대운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1997년)한 바 있는 조디 윌리엄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미 존스 홉킨스대 석좌 교수), 하버드대 한국학과 교수이자 한국연구소 소장인 카터 에커트 교수, 이시무라 신이치 동아시아 개발학센터장, 칠레 중앙은행의 비토리오 코보

총재, 국제관계이론 및 국제정치경제학자 토마스 비어스테커 교수(미 브라운대 교수) 등이다. 본교 국제대학원 유장희 원장은 “이들은 앞으로 본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특강 등 강의를 하게 되며, 이화의 교육 여건을 세계 선진대학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자문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우리 이화의 젊은이들이 소중한 학문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는 의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화는 다시 2,761명의 학사와 879명의 석사 그리고 77명의 박사를 세상으로 내 보냅니다. 농부들이 추수할 때와 같은 기쁨이 오늘 우리 졸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 모두에게 가득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의 영광을 안기까지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화동산을 떠나는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이 사회의 주역이며 리더들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가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하면서도 한편, 진정 어린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염려와 걱정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조

종사들은 장애물에 초점을 맞추고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장애물을 너무 의식하면 결국 비행기는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 환경이 매우 어렵고, 졸업생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미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앞길에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해도

상생과 평화의 시대만들어가는데
참된 여성지식인 되기를...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화에서 여러분이 가졌던 젊은 날의 빛나는 실험정신과 정진을 되새기면서, 이화동산에서 여러분이 단련 받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의 경험과 경륜을 존중하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편벽한 자기주장에 사로잡혀 더 큰 세상의 모습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나와 다름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는 우리 사회를 한 차원 더 성숙시킬 것입니다. 특히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은 21세기의 인류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라는 것을 상기할 때, 이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여는 젊은이들이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이며 자세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제시한 문제만 얽전히 풀어가는 것으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낡은 시선을 지닌 이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찾아내어 문제로 제기하는 용기 있는 도전과 상상력으로 우리사회의 경화된 영역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냈으로써 새 흐름을 주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화인이라면 누구나 몸소 익히고 있는 당연한 소명으로서, 어떠한 낡은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화에서 여성들이 주도하는 독특한 공동체의 경험을 체화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소중한 자양분으로 하여 이 시대의 무자비한 경쟁논리와 권력중심적 윤리를 지양하고 상생과 평화의 대안적 시대윤리를 만들어 나가는 참된 여성지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화는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없는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졸업은 여러분이 영원한 이화인이 되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앞에서 달려 나가고 그 뒤를 이화공동체가 뒤따라 질주하고, 또한 이화공동체가 응비하는 그 옆에 여러분이 나래를 펴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려봅니다.

언제나 이화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호와 인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졸업생 여러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켜 주신 교수님들과 가족들께도 하나님의 격려하심이 있기를 빕니다. (요약본)

2004년 2월 23일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신인령

사범대학, 2회 연속 '최우수' 평가받아

본교 사범대학이 2003년 교육인적 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2기 전국 사범대학 평가에서 종합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사범대학은 종합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 '교육 여건 및 지원 체제'의 세 가지 평가 영역에서 최우수로 판정돼 각 영역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본교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를 권장하며, 강의 평가를 통해 교수들의 능력 계발을 효과적으로 구현해 '교육과정 및 수업' 영역에서 최우수로 뽑혔다. 또 부속



최우수 사범대학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본교 사범대학 전경

화 환경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본교 사범대학은 전국 사범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98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사범대학으로 선정됐다.

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실습이 용이, 교직 적성 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교수 및 학생' 영역에서는 교수가 연구와 학생지도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 논문 저술 발표 실적이 두드러졌다는 평이다.

'교육 여건 및 지원 체제' 영역에서는 사범대 전용 교수학습자료센터에 교수학습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

'대학발전과 인성교육에 기여'

서강대 류장선 총장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 수여



본교는 지난 2월23일의 2003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 서강대학교 류장선 총장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사진)했다.

류장선 총장은 72년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학, 귀국 후 83년부터 모교에 재임하며 후학 양성과 학문연구에 헌신해 왔다. 류

총장은 일찍이 천주교 수도단체인 예수회(The Society of Jesus)에 입회해 성직자로서 수련을 쌓는 한편, 1987년부터 5년 동안 성이나시오 야간학교 교장으로서 소외계층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강대 총장 취임 이후에는 도덕성을 강조한 인성교육에 힘써 왔으며 대학발전과 경영 쇄신에 노력을 기울여 대학 자율 경영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본교 및 연세대학교와의 교류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 신촌 지역 3개 대학 교류 협력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열린 학위수여식에는 정익숙 이화학당 명예 이사장, 유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신인령 총장, 김일섭 부총장 등 본교 교수, 직원, 학생들과 서강대학교 교수, 직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저도 이화인입니다"



'한가람 봄바람에 피어난 우리, 성인이 이를 불러...'

이화의 새로운 힘이 될 2004학년도 새내기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사진)이 지난 2월26일(오전 9시) 대강당에서 열렸다.

학생처(처장 김현숙 교수)가 마련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숫아라, 이화!'에서 신입생들은 이화의 역사가 담긴 교가를 소리 높여 불러보고 장학금과 상담센터 등 교내 생활과 관련한 각종 정보에 귀 기울이는 등 이화 배우기에 열심이었다.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로 한껏 흥이 돋은 이날 행사는 이화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선배인 '김주하(과학교육 98년졸·MBC 뉴스데스크 앵커) 동문과의 만남'으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리더가 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길 바란다"는 선배의 당부에 신입생들은 힘찬 박수로 응했다.

이어 27일, 대강당에서 개최된 입학식에는 3,645명의 신입생이 참석해 이화인으로서 희망의 첫발을 내딛었다.

요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 특강

'복지국가의 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로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요란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지난 3월11일(오전 10시 20분) 국제교육관 LG컨벤션 홀에서 특별 강연(사진)을 가졌다.

이날 강연의 주제는 '복지국가의 경제 활성화 방안(Ensuring Economic Vitality in a Welfare State)'으로 페르손 총리는 복지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와 양성평등 보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페르손 총리는 이어 "스웨덴에서는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져 있지만, 여전히 정치적 가치에 있어서



는 여성 차별이 남아 있다"면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양성 평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령화된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책임은 새로운 도전이며 사회적 컨센서스에 기반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 양성평등이야말로 가장 큰 성장동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유후정 이화학당 이사장과 신인령 총장, 오스트리아, 그리스, 독일, 수단, 핀란드, 폴란드, 아일랜드, 체코, 이란 등 각국 대사, 교수 및 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화보로 미리 보는 '이화캠퍼스센터'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캠퍼스 밸리'

“열린 캠퍼스...미래의 여성상 담았다”



● ECC국제현상 설계 공모 당선자 도미니크 페로(맨 위사진). ● '캠퍼스 밸리' 전경. 이화광장 진입구에서 본관까지 대로형 광장으로 길게 이어져 있다.

파리 국립도서관 설계자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50)가 본교 이화캠퍼스센터(ECC)의 국제 현상설계 공모전의 당선자로 확정됐다.

본교는 지난 2월1일(일), 도미니크 페로를 비롯, 이라크 출신의 여성건축가 자하 하디드(53), 40대 신진건축가군을 대표하는 FOA (Foreign Office Architects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41), 파시드 무사비(39))등 세가지 설계안을 놓고 심사를 벌인 결과, 도미니크 페로의 '캠퍼스 밸리(Campus Valley)' 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페로의 설계안은 가운데 부분이 마치 계곡처럼 광장과 운동장을 거

쳐 본관앞까지 길게 가로지르면서 지하로 서서히 내려가는 대로형 광장의 형태를 띄고 있다. 김종성 심사위원장은 이 설계안이 “기존의 이화 캠퍼스와 편안하게 어울리면서도 긴 통로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질 수 있으며, 향후 대학교육의 기능적인 변화에도 폭넓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페로가 설계한 ECC의 주제는 ‘공원같은 대학 교정, 도시와 연결된 대학 공원, 여성성과 자연을 결합한 열린 공간’.

도심속에 위치한 본교의 지리적 장점을 충분히 살려 대학이라는 공간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는 것. 페로는 또 '여성은 남성의 미래' 라면서 "1백년이 넘는 유서깊은 여자대학이 21세기를 내다보며 짓는 새 교육문화공간이라는 주제가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본교는 페로의 당선작을 비롯된 세 가지 설계안의 제출도서(보드 및 건축모형) 전시회를 2월2일~9일 교내 경영관홀에 마련, 많은 이화인들과 건축학도, 건축전문가들에게 이들의 작품을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또 2월1일 심사 당일에는 공모전에 참여한 세 건축가팀이 나란히 연사로 나선 건축포럼(김영의홀)이 열려 국내 건축가와 건축학도 1천여명이 뜨거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캠퍼스 밸리'의 가운데 부분.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이벤트가 펼쳐지는 열린 공간이다.(오른쪽)

● 지하가 교정이 되고 하늘공원이 되는 이화 캠퍼스센터. 국제교육관쪽에서 내려다본 모습이다.(아래)



재무처 박경희 처장과의 일문일답

ECC, 이것이 궁금하다

Q 운동장이 사라지면 체대 수업 및 대동제는 어디서 하게 되나

A 이화교 복개 공사가 올해안으로 끝나면 상부에 총면적 3천7백평에 이르는 매우 넓은 공간이 확보된다. 이 공간은 복개 공사가 끝나는데로 스포츠 코트로 조성, ECC 공사기간 중 체대의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일상적 체육활동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ECC가 완성되면 복개 상부와 광장을 연결하는 지상부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캠퍼스 중심(center)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폭



박경희 재무처장

25m, 총길이 250m에 달하는 이른바 '계곡'(ECC의 별칭인 Campus Valley)안에서는 대동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학생들의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다.

Q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선다는데...

A 연면적 2만평, 지하 5층 규모의 ECC는 하부 2개층은 지하 주차장으로, 상부 3개층은 교육기본시설 및 문화복지시설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ECC안에 생긴다는 '문화 복지시설'이 결국 학교와 상권을 학교안까지 들어오는 결과가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ECC내 '문화 복지시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상업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이화인들의 편리한 캠퍼스 생활

에 필요한 시설로만 구성된다. 구체적인 입주 시점은 현재 계획단계이며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입주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Q ECC 공사중 학생 등 이화인들의 안전 문제는?

A 공사중 안전문제는 학교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과제이며 단계별 개발을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할든지, 대형공사차량은 새벽이나 휴일에 진입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ECC는 선진적 교육 문화환경 확보와 이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공사 규모도 크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이화인들의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나 학교는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연구중심대학 이끝 새 진용 갖추

2004학년도 1학기 보직 인사가 지난 2월1일 단행되었다.

본교는 5개 대학원장과 4개 대학장 그리고 산학협력단장을 새로 임명, 내실있는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 진용을 갖추었다. 신임 보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최운식 교육대학원장



안홍식 사회복지대학원장



양명수 신학대학원장



김현자 인문과학대학장



주영주 사범대학장



변영순 간호과학대학장



이준승 산학협력단장

보직명	성명	소속
교육대학원장	최운식	사회생활학
신학대학원장	양명수	기독교학
사회복지대학원장	안홍식	경제학
정보과학대학원장		
정책과학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장		
인문과학대학장	김현자	국어국문학
사범대학장	주영주	교육공학
중등교육연구소장	변영순	간호과학
간호과학대학장		
간호과학연구소장	이준승	생명과학
산학협력단장		
국제정보센터소장		
국제대학원교학부장	조기숙	국제학
국제학부장		
기획처부처장(기획)	김유환	법학
연구처부처장	이미정	컴퓨터학
산학협력단부단장	정문중	경영학
교 목	장윤재	기독교학
교 목	안선희	기독교학
자연사박물관장	이인숙	생명과학
자연사연구소장		
대학보건소장	전선희	의학
이대학사부주관	김은주	영어교육
국제교육원장	김은미	국제학
발달장애아동센터소장	방희정	심리학
기숙사관장	김경숙	사회체육학
한국여성연구원장	오정화	영어영문학
통역번역센터소장	이유희	통역학
여성지도력개발센터소장	김계주	여성지도력개발센터
인문학연구원장	정재서	중어중문학
기호학연구소장	최민숙	독어독문학
여성신학연구소장	이경숙	기독교학
영미학연구소장	서 숙	영어영문학
나노·바이오기술연구소장	김성진	나노과학부
법학연구소장	장영민	법학
특수교육연구소장	송준만	특수교육

보직명	성명	소속
인간생활환경연구소장	박성연	소비지인간발달학
대학원디지털미디어학부장	김원용	디지털미디어학부
대학원복합학협동과정주임교수	전숙자	사회생활학
북한학연계전공주임교수	송영빈	인문과학부
대학원지역연구협동과정주임교수	이진영	통역학
통역번역대학원교학부장	양옥경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대학원교학부장		
정보과학대학원교학부장	김정권	경영학
정책과학대학원교학부장		
경영대학원교학부장	송기정	불어불문학
인문과학부장		
불어불문학전공주임교수	한인영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전공주임교수	김정선	사회학
NGO연계전공주임교수	유성경	심리학
심리학전공주임교수	오만숙	통계학
통계학전공주임교수	안창림	물리학
물리학전공주임교수	최원자	생명과학
생명과학전공주임교수	이귀자	작곡
작곡과장	문재숙	한국음악
한국음악과장	장화진	회화·판화
대학원조형예술학부장	우순옥	회화·판화
회화·판화전공주임교수	김현중	환경디자인
환경디자인전공주임교수	조재경	산업디자인
산업디자인전공주임교수	손정례	섬유예술
섬유예술전공주임교수	신상미	무용
체육학부장		
무용과장	김옥수	간호과학
간호과학대학교학부장		
간호과학과장	이경림	제약학/분생부
약학부장		
정보보호학연계전공주임교수	이향숙	수학
해부학교실주임교수	한후재	의학
미생물학교실주임교수	서주영	의학
뇌신경과학교실주임교수	한평림	의학
산부인과학교실주임교수	전선희	의학
성형외과학교실주임교수	박홍식	의학
중등교육연구원연구개발부장	성호현	사회생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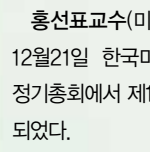
교수동정

수상



류철균교수(국문)가 지난해 12월 31일 정보통신부가 주는 'IT 산업 발전 공로자 장관 표창'을 받았다. 류교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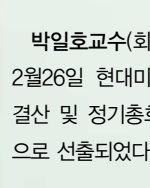
학회장취임



홍선표교수(미술사학)가 지난해 12월21일 한국미술사학회 제35회 정기총회에서 제1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재돈교수(중문)가 지난 11월20일 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 학술대회 임시 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백일호교수(회화·판화)가 지난 2월26일 현대미술학회 2003년도 결산 및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등정



조정현교수(도예)가 미국의 크로 아시아 컬렉션 미술관에서 2월24일부터 선보이고 있는 한국 도예가들의 작품 전람회 '불꽃의 혼'의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추천으로 이번 도예전을 맡게 된 조교수는 3년간 미국 순회전시를 개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화교육에 헌신한 고마운 얼굴들

2004년 2월29일자로 전재옥 교수 등 6명이 정년퇴임 했다.
20~30여년간 이화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정년퇴임교수들의 프로필을 신는다.

전재옥 교수(기독교학)



1977년 3월부터 27년간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에 재직하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인재 양성에 기여했으며 선교신학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업적을 이뤘다. 또한 한국 여성 선교사 중 최초로 파키스탄에 파견돼 이슬람과 기독교 연구에 신선한 접근을 시도했으며 아시아 선교 발달에 큰 공헌을 했다. 전교수는 한국 복음주의 선교학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다락방 사무총장 재임 시 농촌 및 해외 선교에 이바지했다.

2000년부터 정년퇴임까지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재임하며 교회 여성 전문화에 기여했으며 미국 플러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자랑스런 동창 상' (1991년)을, 영국 부르넬 신학대학원에서 명예박사학위(2003년)를 받았다.

신형식 교수(사학)



1981년 9월부터 22년 6개월간 인문과학대학 사학과에 재직하며 한국 고대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겼다. 1960년대부터 수많은 저서와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신라사 분야를 집중 조명해 왔으며 백제사와 고구려사 등의 한국 고대사 연구에 기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한국사학사, 고구려 유적조사 등 그동안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제39회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다. 신 교수는 한국사학회, 한국고대학회, 백산학회, 역사교육연구회 등의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사학회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국사편찬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정부관련 기관 자문 역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

이정식 교수(의학)



1968년 2월부터 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에서 36년 동안 재임하며 유능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에 기본을 두

고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남다른 열의를 갖고 헌신해 전문 여성 교육자로서 귀감이 되어왔다. 본교 의과대학 방사선과학교실 주임교수 및 과장을 역임하고 대한방사선의학회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으로도 활동, 진취적인 원로로서 큰 업적을 남겼다. 1974년에는 동경 국립암센터에서 조기 위암에 관한 연구를, 1979년에는 영국 런던 미들섹스의과대학 부속병원 진단 방사선과학교실에서, 1982년에는 미국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초빙교수로 연구하며 국내외 의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홍성희 교수(작곡)



1977년 3월부터 27년간 음악대학 작곡과에 재직하며 많은 논문과 창작곡을 발표하였으며 음악교육자로서 음악대학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했

다. 여성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작곡계에 후배와 동문들의 교육계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해온 홍교수는 음악대학 동창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음악대학 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본교 출신 동창 작곡가들로 구성된 '신음악회'를 조직해 여성음악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해왔다.

홍교수는 작곡과장, 대학원 음악학과장, 음악대학 교학과장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행정 능력과 포용력으로 학생들과 교수들이 한마음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희래 교수(의학)



1977년 3월부터 27년간 의과대학에 재직하며 올바른 인격을 갖춘 의학도 양성에 힘썼으며 이에 필요한 기초의학, 특히 해부학 관련 교과목 교육

의 발전과 실천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해부학 용어를 정리해 해부학 용어집을 발간함으로써 국내 의학 용어 통일에 크게 공헌했다. 이 교수는 독일의 막스프랑크 뇌연구소에서 전자현미경적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해당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 해부학회의 회장을 비롯해 이사 및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해 학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1977년 부임이래 해부학 교실 주임 교수, 의과대학 의예과장, 교학부장 및 의과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교육 뿐 아니라 본교의 발전에 공헌했다.

박수연 교수(교육학)



1983년부터 20년 6개월간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재직하면서 우수한 교사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원, 국제대학원 설립에 기여했다. 또 '고등

교육학' 강좌를 개발, 한국 교육행정학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며 대학교수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리더십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한국의 '고등교육학연구'와 '교육행정학연구' 등의 전문학술지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개혁적 리더십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높여왔다.

1980년대 중반에는 한국 대학의 평생교육기관의 효시인 본교 평생교육원 창설멤버로 활동하며 교과과정 개발 및 교육의 실천적 운영을 위한 제반 기획 업무를 담당해 '평생학습' 이념 실천에 이바지했다.

2004학년도 1학기 신입교수 58명 이화교육 수월성 제고할 우수인력 영입

김관목 교수(나노과학부)등 신입교수 58명이 2004학년도 1학기에 새로 임명되었다. 본교는 새로 충원된 교수진을 통해 전문 여성인력 양성 및 이화 특성과 교육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전문가, 국내외 석학, 외국인 교수를 적극 영입, 이화교육 수월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소속		성명	최종출신학교	최종학위명
대학원	나노과학부	김 관 목	연세대	이학박사
		박 성 수	Cornell Univ.	Ph.D.
		윤 여 준	서울대	공학박사
		김 연 상	서울대	공학박사
	디지털미디어학부	김 명 준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Luiz M. Alves dos Santos	Darmstadt Univ. Technology(독)	Dr.-Ing.
국제대학원	국제학	박 인 휘	Northwestern Univ.	Ph.D.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	이 연 향	Univ. de Geneve(스위스)	Diplome
		배 유 정	한국외국어대	문학석사
	번역학	최 미 경	Univ. de Paris IV(프)	Doctorat
교육대학원	교육학	김 명 숙	Temple Univ.	Ph.D.
		김 정 자	서울대	교육학박사
		신 승 희	華中師範大學(중)	문학박사
인문대	인문과학부	김 지 선	오차노미즈여대(일)	문학박사
		국어국문학	강 소 영	이화여대
	김 경 미		이화여대	문학박사
	김 경 숙		이화여대	문학박사
	나 은 진		이화여대	문학박사
	이 선 웅		서울대	문학박사
	조 혜 란		이화여대	문학박사
	기독교학	장 윤 재	Union Theological Seminary	Ph.D.
		안 선 희	Johann Wolfgang Goethe Univ(독)	Dr. Theol.
	중어중문학	곽 사 통	復旦大(중)	Ph.D.
최 려 홍		이화여대	문학석사	
사회대	행정학	강 민 아	Harvard Univ.	Ph.D.
		원 숙 연	Univ. of Nottingham	Ph.D.
	사회복지학	정 순 돌	Univ. of Texas Austin	Ph.D.
		심리학	이 혜 원	Univ. of Massachusetts
자연대	통계학	이 은 경	Iowa State Univ.	Ph.D.
과학기술대학원 /공과대학	컴퓨터학	조 태 남	이화여대	공학박사
	정보통신학	박 성 민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nology & Medicine(영)	Ph.D.
		김 정 태	Univ. of Michigan	Ph.D.
조형대	조 소	최 은 경	이화여대	미술학석사
	환경디자인	김 연 정	William Paterson Univ.	M.A.
	시각디자인	최 유 미	Texas A&M Univ.	M.S.
	복식디자인	김 정 해	Ohio State Univ.	M.F.A.
체육과학대학	체육학	박 승 하	서울대	체육학박사
사범대학	교육학	김 안 나	U.C.L.A.	Ph.D.
법과대학	법학	김 상 일	서울대	법학박사
경영대학	경영학	박 경 도	Carnegie Mellon Univ.	Ph.D.
	비서학	Jason P. Grasse	Case Western Reserve Univ.	M.B.A.
의과대학	의학	편 옥 범	연세대	의학박사
		김 용 일	연세대	의학석사
		김 윤 진	이화여대	의학석사
		한 수 정	이화여대	의학박사
		이 지 혁	서울대	의학사
		최 유 원	이화여대	의학박사
		신 상 진	연세대	의학석사
		조 용 재	건국대	의학석사
		김 한 수	연세대	의학석사
		이 승 신	서울대	의학석사
생활환경대학	소비자인간달학	강 나 라	서울대	의학석사
		이 정 경	이화여대	의학박사
교양영어실		천 혜 정	Univ. of Minnesota	Ph.D.
		Anthony F. Davis	Oregon State Univ.	M.A.T.
		Thomas J. Garvin	St. Michael's College	M.A.TESL
		Eric P. Petersen Jr.	Temple Univ.	M.E.
		Mark J. Lee	Univ. of Cambridge(영)	M. of Phil.





이은경교수



조태남교수



박성민교수



김정태교수



최은경교수



김연정교수



최유미교수



김정혜교수



박승하교수



김안나교수



김상일교수



박경도교수



Grasse교수



편옥범교수



김용일교수



김윤진교수



한수정교수



이지혁교수



최유원교수



신상진교수



조용재교수



김한수교수



이승신교수



강나라교수



이정경교수



천혜정교수



Davis교수



Garvin교수



Petersen Jr.교수



Mark J. Lee교수

2004학년도 1학기 승진 교수

교무처(처장 김문현 교수)는 2004학년도 1학기 승진교수 명단을 발표했다. 2004학년도 1학기 평균 승진율은 62.5%이다.

교수

장동훈(디지털미디어), 최병주(컴퓨터), 임석재(건축), 최병일(국제), 강철구(사학), 김도훈(불어불문), 이수미(불어불문), 정연경(문헌정보), 주철환(언론홍보영상), 이재경(언론홍보영상), 이재경(여성학), 김선영(수학), 문재숙(한국음악), 오숙환(한국화), 이종목(한국화), 조덕현(회화·판화), 황규호(교육학), 정영란(과학교육), 이종희(수학교육), 김진호(경영), 김형래(의학), 김원기(의학), 장중현(의학), 유권(의학), 윤여현(의학), 윤태식(의학), 김옥수(간호과학), 김종준(의류직물)

부교수

오역수(분자생명), 이수영(분자생명), 최유리(실용음악), 박일호(회화·판화), 김은주(영어교육), 이영민(사회생활), 석인선(법학), 전지현(비서), 정구용(의학), 임기환(의학), 박흥식(의학), 전영진(의학), 이상국(약학), 오상석(식품영양)

조교수

이민수(컴퓨터), 김광수(건축), 이윤희(건축), 이상돈(환경), 김혜림(통역), 송영빈(인문과학), 김미현(국어국문), 이지애(철학), 김우식(사회), 서경혜(교육학), 박지연(특수교육), 유현정(디지털미디어)

2004학년도 1학기 우수교원

교무처(처장 김문현 교수)는 교원의 연구 및 강의의 질 향상을 위해 2004학년도 1학기 연구비우수 교수 25명, 강의우수 교수 5명, 강의우수 시간강사 1명을 선정, 발표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연구비 우수 교수가 대거 선정되어 이화의 연구 능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우수 교수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교무처는 앞으로도 우수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연구비 우수교수

이공주(분자생명), 남원우(나노과학), 김명희(컴퓨터), 최소자(사학), 김혜연(복식디자인), 최경실(환경디자인), 신경식(경영), 이경림(분자생명), 윤영대(분자생명), 박석순(환경), 함동주(사학), 홍선표(미술사학), 구대열(정치외교), 김은실(여성학), 이재경(여성학), 이혜숙(수학), 박일홍(물리), 김경자(초등교육), 성효현(사회생활), 전숙자(사회생활), 김원기(의학), 성주명(의학), 이상국(약학), 김대기(제약), 오상석(식품영양)

강의우수 교수

서숙(영어영문), 안흥식(경제), 모혜정(물리), 오옥환(교육학), 최금숙(법학)

강의우수 시간강사

신승희(중어중문)

2004학년도 1학기 연구년 개시 교수

1년 연구년

장동훈(디지털미디어), 박승수(컴퓨터), 김동수(환경), 최병일(국제), 김도훈(불어불문), 조덕현(회화·판화), 차임선(섬유예술), 임현식(교육학), 김신자(교육공학), 최승원(법학), 김효근(경영), 성순희(의학), 이선희(의학), 최혜영(의학), 이상화(의학), 홍나영(의류직물)

1년(분할) 연구년

박준영(정치외교), 함인희(사회), 양종만(물리), 이여진(작곡)

수업경감 연구년

엄익환(화학), 김경숙(사회체육), 김경자(초등교육), 김미경(식품영양)

반년 연구년

최선열(언론홍보영상), 송준임(생명과학), 전지현(비서), 이경자(의학)

미래과학자,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 신설

입학 처(처장 성태제 교수)는 수시모집에 미래과학자 특별전형, 외국어 우수자 특별전형,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05학년도 총 입학정원은 3,542명이며 이중 55.1%(1,952명)가 수시모집에서 선발될 예정이다.

2005학년도 본교 입학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이에 따른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본교는 2005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영한다.

이러한 모집단위 특성별 반영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 하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함과 동시에 각기 다른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는 각 모집단위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다.

정시모집의 경우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 수리 가/나, 외국어, 사회탐구/과학탐구의 4개 영역을 반영하고,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언어/외국어, 수리 가, 과학탐구의 3개영역을 중심으로 반영하며, 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언어영역과 외국어/수리 가/나 /사회탐구/과학탐구 중 2개 영역을 합하여 총 3개 영역을 반영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계열별로 관련 교과군 및 주요 교과군의 최상위 3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 주요내용 〉

- 입학정원의 55.1%를 수시모집으로 선발
- 수시 모집에 미래과학자, 외국어 우수자, 특별활동 우수자 특별전형 신설
- 국제학부 입학정원 72명으로 확대
- 인문과학부를 인문과학부와 기독교학부로 분리
- 자연과학부를 수리물리과학부와 분자생명과학부로 분리 확대
- 논술고사는 인문계열 모집단위만 실시

둘째,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국제적 감각을 지니고 있으며 장래 국제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국제학부의 입학정원을 확대,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에서 총 72명을 선발한다.

셋째, 인문과학대학의 인문과학부를 인문과학부(502명)와 기독교학부(20명)로, 자연과학대학의 자연과학부를 수리물리과학부(140명) 및 분자생명과학부(200명)로 분리·확대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넷째, 이공계열 육성과 여성 과학자 양성을 위하여 수시모집에 미래과학자 특별전형을 신설, 수학·과학 분야 인원의 선발을 확대하며, 정시모집에서도 자연과학대학 및 공과대학의 1단계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수리 및 과학탐구 영역에서 특히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들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다섯째,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모집의 취지에 따라 리더십, 수학 및 과학, 외국어, 특별활동 등에 특성화된 전형을 신설·확대하여 다양한 능력과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한다.

여섯째,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인문계열에 한하여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최근의 입시경향에 발맞추어 사범대 인문계열 모집단위를 포함한 인문계열 모집단위만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전형에 반영한다.

2005학년도 입시설명회 개최



“이화路, 이화로 오세요”

지난 3월13일(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본교의 2005학년도 입시설명회(사진)에는 2천3백여명의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입학처(처장 성태제 교수)는 올해가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만큼 이화에 오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계획 및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입시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본교의 입학 전형의 특징들이 소개되었다. 주요 사항으로는 수시2학기 모집에서 미래과학자 전형, 외국어 우수자 전형, 특

별활동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으며 국제학부는 모집 인원 확대 및 외국인 별도 선발과정이 추가되었다.

입학처의 김영심 상담실장이 진행한 입학전형 안내 시간에는 특별히 수험생의 특성별 전형 안내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5개영



역의 변경 사항 설명이 포함되어,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다.

입학처는 이번 입시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 입학과 홈페이지

에도 올려 놓을 계획이다.

입학처 홈페이지 <http://enter.ewha.ac.kr>

영광의 졸업장 받아든 만학도 이대생들-강영희 · 정옥희 · 인혜연씨

젊음 되찾아준 이화야, 고맙다!

“우리 드디어 졸업합니다.” 지난해 금혼학칙이 폐지되면서 재입학했던 70대의 강영희씨(교육 51년 입학), 정옥희씨(국문 51년 입학), 그리고 인혜연씨(의류직물 72년 입학) 등 4명이 지난 2월 23일, 200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영광의’ 졸업장을 받았다. 이들이 거둔 만학의 결실은 어떤 모습일까?

딸, 손녀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학업을 위해 단신 귀국했던 정옥희씨는 기숙사에서 젊은 후배와 한방을 쓰며 학교생활에 폭 빠져 지냈다. 전공인 희곡쓰기와 읽기 외에, 중급일본어까지 고회를 넘은 나이에 공부 욕심은 젊은 시절보다 넘쳤다.

“캠퍼스의 지적인 분위기에 흠뻑 젖어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토론시간에는 후배들이 쏟아내는 유행어가 낯설어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렵게 쓴 리포트를 한순간에 날린 컴퓨터 때문에 운적도 있었지요.”

힘들 때마다 더 매달린 끝에 좋은 성적을 얻은 정옥희씨. 한국전쟁 시절 학비가 모자라 휴학을 하고, 육군 장교였던 남편과의 혼인 때문에 1학기를 남긴 채 이화를 떠나야 했던 그는 졸업장을 손에 들고 평생의 아쉬움을 50년 만에 털어냈다.

“교육관을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요.” 논밭이었던 교정이 건물로 가득 차 있어 길 찾느라 애를 먹었다는 강영희씨. 54년 당시 교생실습까지 다 이수했지만 그해 12월, 집안에서 결혼 날짜를 잡아버려 졸업장을 놓쳤다. 5년 전에 재입학을 문의할 정도로 학업에 애착이 강했던 그였지만 첫 등교 때는 걱정부터 앞섰다. 손녀같은 학생들에, 불편한 몸까지, 한참 들어버린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같이 재입학한 학생들이 있어 든든했다.



자랑스런 학사모를 쓴 인혜연, 정옥희, 강영희씨(왼쪽부터).

“자주 만났어요. 공부를 끝내지 못했던 옛날의 한스리웠던 처지도 나누고, 그리고 다들 참 열심히 생활하니까 보기 좋더라구요.”

그가 한 학기동안 이화의 50년 세월을 훑쳐 뛰어 넘을 수 있었던 것은 도서관에서 찾아 읽은 ‘이대 야사’ 덕분이라고.

“가을의 낭만을 느끼겠다 싶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요.”

10명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축하 꽃다발을 받은 인혜연씨의 소감이다. “현장 학습도, 팀티칭(team teaching)도 모두 새로웠어요.” 전공인 패션문화를 수강하면서 패션쇼에다 연극 공연까지 신나게 즐기면서 공부했다는 그는 뒤늦은 학업 덕분에 나이를 잊게 되었다고. 졸업 작품으로 투피스 두벌을 직접 만들었을 때는 너무 뿌듯해서 빨리

제출하고 싶었을 정도였다. 앞으로는 동창 모임에 더 자주 나갈 것 같다며 인혜연씨는 학사모를 쓴 채 함박웃음을 지었다. <정>



58년만에 탄생한 이화의 첫 기혼 입학생-전영미 · 기성화씨

“아줌마의 힘 보여줘야죠”



이화에서 제2의 대학생활을 시작한 전영미(왼쪽), 기성화씨

“비상구를 파악했죠.” 새내기답지 않게 벌써 이화의 지름길을 꿰뚫고 있는 전영미씨(32세, 약학). 반면, 건물들이 헛갈려 지나갔던 길을 다시 걸을 때가 많다는 기성화씨(29세, 초등교육). 이들은 지난해 본교가 금혼 학칙을 폐지한 후 정식으로 이화에 입학한 첫 번째 기혼 학생이다. 둘의 공통점은 결혼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화가 두번째 입학한 대학이라는 것. 입학 성적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첫 학기, 8과목을 수강해 가방이 무겁다는 전영미씨. “남들은 외국으로 유학도 가는데, 제가 평생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를 진지하게 고민했죠. 내 인생을 위해 투자하는 마음으로 수능 공부에 임했어요. 힘들 때마다 50년만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 공부하고 있는 할머니 이대생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중소 의류업체 의류 디자이너였던 그는 작년 5월에 결혼했지만 입시 때문에 신혼여행은 아직 다녀오지 못했다.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데 걱정이예요.” 벌써부터 공부벌레가 된 듯한 전영미씨. 평소 한 약학공부라 더 조바심이 난다는 이 아줌마 새내기인 동급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 긴장감을 내비쳤다.

10개월된 딸아이의 엄마인 기성화씨는 지난해 수능 시험과 출산을 동시에 치러냈다. “무거운 몸으로 수능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출산과 산후 조리 3개월 가량의 공백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 제2의 전공이지만 육아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도 느끼는 기성화씨. 노동부 산하 기관이었던 안정된 전 직장을 버리고 지금의 전공을 선택한 만큼 누구보다 알찬 대학 생활을 다짐하고 있다.

“세대차이는 느껴요.” 오리엔테이션에는 못 갔지만 같은 과 학생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다는 그는 종종 만연회가 된다. 결혼 생활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이 곤잘 질문을 쏟아내기 때문. “그럴 때는 결혼의 환상이 깨지지 않을 정도만큼만 얘기해줘요.” 아줌마 특유의 여유와 유머 때문일까. 몇몇 동기생들과는 같이 교정을 거닐 만큼 벌써 친해졌다.

“과제가 많아서 바빠질 것 같아요. 그래도 도시락 싸주며 수능 공부 뒷바라지했던 남편과 곧 뒹굴 뒹굴 딸아이 생각하면 힘이 솟는답니다.” 짜투리 시간은 도서관에서 보낸다는 욕심 많은 두 아줌마 새내기들의 미소가 싱그럽게만 느껴진다. <민>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 200억 규모 정통부 프로젝트 참여

본교와 독일 프라운호퍼IGD가 공동 설립한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원장 김원용 교수)이 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선도기반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백억원 규모로 금년 4월부터 4년간 진행된다.

'선도기반 사업프로젝트'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인텔리전트 매뉴팩처링 기술과 멀티

미디어 콘텐츠의 정보보안기술인 차세대 디지털 워터마크 개발을 목표로 진행된다.

(재)뉴미디어기술연구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고급 연구 인력을 본교 관련학과 및 대학원 재학생중에서 충원할 방침이어서 본교 디지털 미디어학부 및 이공계학과의 연구 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연구원 공동설립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IGD 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국제적 연구 및 경제적 혜택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프라운호퍼IGD를 비롯 한국 전자통신연구원의 대응투자가 2백억원 가량 책정돼 있으며 독일의 BMW, 지멘스, 한국의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등이 협력연구기관으로 참여하게 돼 유익적인 산학협동 연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사회 이끄는 여성인재의 산실, 이대 학보 창간 50주년



발표, 동영상 상영회, 50주년 사진전, 이대학보 변천사 전시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다.

'자랑스런 이대학보인상'은 공로 부문에 이종선(국문 62년졸, 전 본교 홍보차장), 김미령(신방 69년졸, F커뮤니케이션 대표), 언론 부문에 장명수(신방 64년졸, 한국일보 이사), 박선이(영문 84년졸, 조선일보 문화부장), 박태경

(사회 79년졸, KBS편성국 외주제작부 부장), 학술 부문에 신옥희(영문 58년졸, 전 철학과 교수), 장필화(영문 74년졸, 여성학과 교수), 예술 부문에 정연희(국문 58년졸, 소설가), 문화 부문에 최옥자(신방 65년졸, 일일서각 대표), 이경순(신방 67년졸, 방송비평가), 전여옥(사회 82년졸, 방송인), NGO 부문에 신혜수(영문 72년졸, 경희대 NGO대학원 객원교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등문이 각각 수상했다.

이대 학보사(주간 이수미 교수)가 올해 2월로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1954년 2월12일에 창간돼 학교와 재학생, 동창생을 이어주는 다리역할을 해온 이대학보는 반세기에 걸쳐 이화를 충실하게 기록, 대변해 왔다. 지난 3월10일(오후4시)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열린 창간 50주년 기념식(사진)은 이대학보 출신인 황정민 동문(영문 93년졸)이 사회를 맡았으며 '자랑스런 이대학보인상' 시상 및 시대별 대표기자 소감

'어떤 일도 자신 있어요' 인턴십 평가회



경력개발센터(원장 최애경 교수)는 2003년 하계방학부터 시작해 2회째를 맞이한 겨울학기 인턴십 평가회(사진)를 지난 2월25일(오후4시) 이화·포스코관 B161호에서 개최했다.

삼성SDS, 삼성생명, 현대홈쇼핑, 골드만삭스, 한국리서치 등 총 24개 기업과 47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평가회에서 기업 실무현장에 파견됐던 인턴학생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치열한 생존의 법칙을 경험했다"며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들리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이화 달크로즈 트레이닝 센터 개원

음악연구소(소장 정복주 교수) 부설 달크로즈 트레이닝 센터가 3월6일(토) 문을 열었다(사진).

본 센터에서 선보이는 달크로즈 교육법은 스위스의 작곡가이며 교육자인 달크로즈가 만든 독특한 음악 교육법으로, 음악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신체활동교육을 통해 연주 효과적으로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계발에 그 목적이 있다. 음악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성인들



및 음악교육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은 달크로즈 유리드믹스를 이용한 효과적인 음악 개념 지도 방법, 달크로즈 솔페즈, 즉흥연주 기술의 습득, 신체표현기법, 발성기법 등 달크로즈 교수법 전반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과의 연계 교육을 통하여 세계적인 음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 3277-4046~7



국제대학원 국제정보센터,

아시아개발은행

기탁도서관으로 지정

국제대학원 국제정보센터가 아시아개발은행(ADB) 기탁도서관으로 지정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7개의 기탁도서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제정보센터는 2002년 10월부터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단행본 500여권, 정기간행물 5종에 이르는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다. 제공받은 자료는 국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aturn.ewha.ac.kr>)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직원동정

정년·명예 퇴직 직원 6명 학교 발전 위해 소명 다해

지난 2월29일자로 신학대학원의 강진옥 주임과 재무처 시설과 윤치영 주임이 정년퇴직을, 의과대학 표운수 과장을 포함한 4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강진옥 주임



윤치영 주임

정년 및 명예 퇴직 직원을 위한 환송 예배는 지난 2월20일 이화·포스코관 B153호에서 있었다.



표운수 과장



박문자 과장



이영자 주임



원용무 씨

구분	소속	성명	직위	발령사항
정년퇴직	사회복지/신학대학원	강진옥	주임	교육대학원, 자연과학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원 겸직 사회복지대학원/신학대학원 겸직 24년 8개월 근속
정년퇴직	재무처 시설과	윤치영	주임	시설과, 28년 근속
명예퇴직	의과대학	표운수	과장	의과대학, 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원 겸직, 관재과, 의과대학 29년 9개월 근속
명예퇴직	중앙도서관	박문자	과장	중앙도서관, 37년 근속
명예퇴직	중앙도서관	이영자	주임	중앙도서관, 36년 근속
명예퇴직	의과대학	원용무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실) 22년 7개월 근속

직원 인사 발령 (2월 1일자)

소속	성명	직위	발령사항
정보/정책과학대학원	손종수	사무직원(과장)	명: 사회복지대학원·정보과학대학원·정책과학대학원
기획처 기획과	유혜련	사무직원	명: 감사실
기획처 기획과	송원자	사무직원	명: 감사실
연구처 연구과	이은규	사무직원(과장)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박혜진	사무직원(주임)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안영숙	사무직원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우소정	사무직원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김수진	사무직원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정연화	사무직원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정주현	사무직원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연구처 연구과	권지영	사무직원	명: 연구처 연구과·산학협력단

본교 직원 5명,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표창 받아

정보·정책과학대학원 손종수 과장과 관재과 조원숙 과장, 구매과 김영재 과장, 중앙도서관 박문자 과장이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국민교육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것을 인정받아 국민교육공자 표창을 받았다. 연구과 이은규 과장은 두뇌한국21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및 운영지원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뇌한국21사업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 수여식은 지난 2월20일 직원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손종수 과장



조원숙 과장



김영재 과장



이은규 과장

출판부 신간

2002년도 출판부 저술 및 출판지원 사업 선정도서 고려 전기 한문학사



이 책은 본교 국문과에서 30년간 한문학사를 강의한 이혜순 교수의 연구 저서로서, 한국 한문학사 내지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큰 문학공백기로 남아 있는 고려 전기 문학을 재구성해보고, 그 사적 전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연구는 고려 전기에 지어진 정치·외교 문서 등의 공용문과 비지문, 개인의 서정 문학 작품 모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서 고려 전기 문학의 총체적 특성과 그 미적 특징, 국문학에서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2만6천원>

정치·경제 등 각 분야별 표현 1만여 개 수록 이진영의 동시통역 기초사전



이 사전은 동시통역사로서 오랜 동안 통·번역 현장에서 일한 이진영 교수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정보를 담은 국내 첫 통역사전이다. 모든 분야를 사회, 문화, 종교, 국제 정치, 안보, 금융, 통상 등 24개의 주요 주제로 분류했다. 그리고 개별 항목은 권말에 수록된 <찾아보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예문은 실제로 사용된 예나 일반적인 사용법을 제시했다. 용어의 범위나 수준은 전문 통·번역 교육을 마치고 활동하기 시작하여 1년 정도의 기간에 접하게 될 용어를 기준으로 삼았다. <2만5천원>

장학금, 발전기금 등 따뜻한 '이화사랑' 이어져

조흥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 발전기금 기탁해와



지나해 12월, 30억원을 기탁하고 매년 3억원씩 납부하기로 한 조흥은행은 2월20일 총장실에서 신인령 총장에게 3억원을 기탁(사진)했다.

농협중앙회는 2월23일 5천만원을, 하나은행은 2월24일 본교에 3천만원을 전달했으며 또한 국민은행도 3월2일에 2천5백만원을 기탁했다.

장학금 기탁

이화오스텝장학금 조성돼

최규옥 오스텝주식회사 대표이사는 2003년 8월에 임상치의학대학원 발전기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2월에는 임상치의학대학원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약정했다.

이화오스텝장학금이라고 명명된 이 기금은 2004년 1학기부터 매학기 1백만원씩 5년간 지급될 예정이다.

조규화 교수 장학금 지급

조규화 교수(의류직물)가 기탁한 장학금 1천만원 중 5백만원을 2004학년도 1학기에 의류직물학과 대학원생에게 지급한다. 조규화 교수는 2003년 6월에도 의류직물학전공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기탁한바 있다.

재미 의대동문을 후배를 위한 장학금 보내와

매년 장학금을 기탁해온 재미 이화순 동문(의학 72년졸)이 \$1,500을 기탁했다. 또 LA의대동창회는 \$1,600을 보내와 모두 의과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조산장학재단 장학금 200만원, 매학기 2명에게 3년간 지급

조산장학재단(이사장 윤송자, 가정관리 64년졸)은 장학금으로 2천4백만원을 약정하고 2004년 1학기부터 매학기 2명에게 각 2백만원씩 3년간 후원하기로 했다.

이영회에서 장학금 기탁

본교 경영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이화여성고위경영자과정 수료생의 모임인 이영회가 탈북여성인 이애란 동문(식품영양 박사과정)의 2004학년도 1학기 등록금으로 써달라며 6백만원을 기탁해 왔다. 기탁내역은 다음과 같다. 오연숙 325만원, 지순영

1백만원, 이강희 1백만원, 이영희연합회 75만원.

또한 김동례 회원도 2004학년도 1학기 법학과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하였다.

그 외 장학금 기탁

정현미 교수(법학) 1천만원

총동창회(회장 윤순희) 2억원

한영자 회장(삼양화학 회장) 1천2백만원

미국 국제재단에서 장학금과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매년 장학금을 보내오는 뉴욕의 이화국제재단에서는 올해는 장학금과 더불어 재미간호대 동창들이 모은 간호과학관 건축기금을 보내왔다.

간호과학관 건축기금

김상연 \$10,000 심재옥 \$2,000 양정남 \$200 윤남주 \$1,000 윤수진 \$4,000 이명숙 \$240 정지은 \$200 한정옥 \$10,000 홍문옥 \$500

장학금

김신형 \$2,000 한정옥 \$40,000 미주 올렌 도지희 \$11,194.56

장학금명	금액
Chang Hyun Shin Geer Scholarship	\$5,000
Charles W. & Grace Cho Choi Memorial Scholarship	\$2,500
Chicago Alumnae Fund	\$2,500
Estelle Hillman Scholarship	\$2,500
Florence M. Trull Scholarship	\$5,000
Harriet P. Morris Memorial Scholarship	\$12,500
Helen Kim Memorial Scholarship	\$20,000
Henrietta Gibson Ladden Scholarship	\$7,500
In Hee Ryu Scholarship	\$2,500
John D. Yun Scholarship	\$2,500
Kathleen Crane Memorial Scholarship	\$2,500
Kathryne B. Sears Scholarship	\$5,000
Mayle Yoon Scholarship	\$4,000
Margaret Okhi Choun	\$4,000
Marion Conrow Memorial Scholarship	\$2,500
Mark Gaston Scholarship	\$5,000
Myung Soon Woo Chung Scholarship	\$10,000
New York Alumnae Scholarship	\$6,000
P. William Lee Scholarship	\$7,500
Sadie Maude Moore Scholarship	\$2,500
Sollie E. McCreless Memorial Scholarship	\$2,500
Steve Seihun Kang Memorial Scholarship	\$7,000
Susan Ruby Lamb Memorial Scholarship	\$2,500
Whilsmith Memorial Scholarship	\$2,500
Young sook Ryu Lee Scholarship	\$2,500

본교 동문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기부금 기탁

금혼학칙 폐지로 본교에 첫 재입학해 지난 2월 학사모를 쓴 정옥희 동문(국문 04년졸)이 \$2,000를 기부했다. 이 기금은 정 동문의 바램대로 국어국문학 전공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명예퇴직한 이영자 동문(문헌정보 68년졸)은 학교발전기금으로 3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동문은 "그동안 기부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학교를 떠나며 학교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본교 대외협력과에서 발송하고 있는 생일축하카드가 계기가 돼 3백만원을 기탁한 김영배 후원자는 딸이 1997년에 영어영문과에 입학했을 때도 입학 기념으로 3백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사이버 세상을 통해서도 동문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대외협력과에서 운영하는 동창포탈사이트 이화인닷컴(www.ewhain.net)의 발전기금 배너를 통해 신정은 동문(행정 94년졸)이 행정고시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30만원을 약정하고 3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납부하기로 했다.

본교에서 근무하는 조금희(약학 77년졸, 학적과장), 임정임(기독교 90년졸, 학적과)씨는 각각 1백만원과 30만원을 이화캠퍼스센터(ECC)기금으로 약정하고 매달 급여공제로 납부하고 있다. 또한 김수진(물리 91년졸, 연구과)씨는 2003년 11월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달 급여공제로 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

그 외 발전기금 기탁

윤건일 의무부총장 1억원

이경수(베네치아 대표) 5천만원

오나미혜(간호 64년졸) 1천만원

'이화 후원의 집' 사업 전개

대외협력처는 학교주변의 상가들을 대상으로 '이화 후원의 집'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교의 장학금 모금에 참여하는 상가에는 조형예술대학의 오병권 교수(시각정보디자인)가 디자인하고 강석영 교수(도자예술)가 제작한 '이화 후원의 집' 패가 전달된다. 지금까지 '이화 후원의 집' 사업에 동참한 가계는 다음과 같다.

가미 6천만원, 은하미용실, 한학문화, 호원당 각 5천만원, 다다, 바독이네집,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밥(BaB), 스시캘리포니아, 압구정샤브샤브, 예스터데이, 프로방스, 마리 이상 각 1백만원, 삼원일식 50만원, 김경록헤어 30만원

2004학년도 총동창회 정기 총회 개최

총 동창회(회장 윤순희)가 주최한 2004년도 신입동창 환영회 및 정기총회(사진)가 3월13일(오후 2시)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대회의실에서 2백여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가진 신입동창 환영회에서는 이양자 법과대학 동창회장의 신입동창 환영사, 고지희 음악대학 신입동창의 답사, 윤순희 총동창회장의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그리고 안상원 씨(대학원 국문과) 등 23명의 재학생에게 각각 백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서 정기총회에서는 2003년도 감사보고, 사업보고,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도 사업보고와 사업계획안 및 예산 의결, 제11차 회칙 개정도 이루어졌다.



장명수 동문(신방 64년졸)



매주 월요일 한국일보에 '장명수 칼럼'을 연재하고 있는 장동문이 삼성언론재단이 수여하는 제8회 삼성언론상을 수상했다. 장동문은 '장명수 칼럼'으로 논평·비평 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정명희 동문(제약 75년졸)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과학기술자들의 모임인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는 올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여성과학자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엄을순 동문(과학교육 78년졸)



지난 2월 페미니즘 계간지 '이프(if)'의 새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엄동문은 96년부터 신구대에서 본격적인 사 진수업을 받고 작가로 활동을 해왔으며 99년부터 이프에서 사진기자, 국장으로 일해왔다.

김선주 동문(국문 69년졸)



지난 2월 한겨레신문의 논설주간(이사대우)으로 임명됐다.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때부터 참여해 생활환경부장, 문화부장, 출판사업본부장 등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는 논설위원을 맡아 왔다.

김병선 동문(법학, 94년졸)



법무부가 올초 실시한 행정사무관 특별채용시험에 25대1의 경쟁을 뚫고 법무부 첫 민간인 행정사무관으로 최종 합격했다. 김동문은 앞으로 송무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담당하게 된다.

장원무지개가족 장원장학금 5천만원 기탁



지난 2월23일 장원무지개가족 대표 김하자 교수(기독교 65년졸, 성신여대 대학원장)와 장남수 교수(식품영양, 전해영 교수(국어국문), 이영숙 연구교수(한국여성연구원)가 대외협력처를 방문, 신경림 대외협력처장에게 장원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

장원무지개가족은 본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00년 2월 소천하신 고 장원 교수의 기독교적 삶과 이웃사랑 뜻을 기리기 위해 장원 교수와 사랑을 나누는 회원들이 연로하신 장원 교수를 걱정하며 준비했던 돈과 장원 교수가 장례비로 쓰라고 남기신 돈, 그리고 장원 교수의 장례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을 합해 5천만원을 조성했다. 장원무지개가족은 고 장원 교수의 삶과 뜻을 기리는 '참스승의 향기'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생전에 장원 교수와 교본은 없었으나 '참스승의 향기'를 읽은 서울오 교수(법학)가 장원 교수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관련 홈페이지: <http://home.ewha.ac.kr/~romanist/chang>

동문동정

전숙희 동문(문과 38년졸)



지난 2월26일 유관순상 위원회가 선정한 제3회 유관순상을 받았다. 한국현대문학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전동문은 한국의 문학과 문화를 세계에 알려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이향림 동문(생물 84년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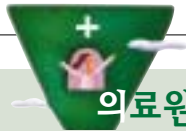


최근 볼보코리아 신입 사장으로 선임, 수입차 업계 최연소이자 첫 여성 CEO가 됐다. 이동문은 BP코리아를 거쳐 볼보트럭에 입사한 이후 2001년부터 PAG코리아에서 재무와 인사 총괄업무를 담당하며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해 최초로 여성임원직에 오르기도 했다.

이행자 동문(영문 62년졸)



지난 2월24일 열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신입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동문은 30여년 동안 YWCA(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해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YWCA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화의료선교봉사단 베트남 활동 마치고 귀국 15년째 이어온 '사랑의 손길'

제15차 이화의료선교봉사단(단장 목동병원 성주명 교수)이 2월21일부터 일주일간의 베트남 하노이 봉사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다(사진).

내과 성주명, 응급의학과 정구영, 흉부외과 한재진 교수를 비롯한 약사, 간호사, 학생 등 15명이 참가한 이화의료선

교봉사단은 2월21일 출국해 7박8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의 오지를 돌며 의료 및 선교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이화의료선교봉사단



은 이번 베트남 봉사를 진행하면서 아시아에 유행하고 있는 조류독감으로 일정이 바뀌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원래의 진료계획을 무사히 마쳤다. 또한 빠듯한

일정속에서 1천 6백여명의 진료를 보는 등 의료선교활동과 함께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과 이화의 이름을 알리는 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이화의료선교봉사단은 앞으로도 의료원과 학교의 지원을 받아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해외 지역에 사랑의 손길을 보낼 예정이다. 더불어 홈페이지에 봉사활동의 취지와 성과를 소개하는 등 귀국 후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2004EMC.cyworld.com>

목동병원 CQI 발표회 개최



목동병원(원장 박영요)은 원내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업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5일 제 4회 CQI(Critical Quality Improvement) 발표회(사진)를 개최했다.

적정진료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발표회에는 감염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총 11개 팀이 참가하여 업무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올해의 으뜸상은 '항암제 무균조제에 따른 서비스 향상과 약제비 절감'을 발표한 약제과가 차지했다. 이날 발표된 여러 개선방안들은 타 부서와의 논의를 거친 후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택시기사 위한 건강강좌 및 무료검진 실시



목동병원은 병원을 방문하는 택시기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택시기사를 위한 건강강좌와 무료검진 행사(사진·1월14일~16일)를 실시했다.

건강강좌에서는 건강정보가 적힌 책자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실시된 무료검진에서는 50세 이상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전립선암검사와 소변검사, 요류검사, 잔뇨검사가 진행됐다. 도심의 매연과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택시기사들이 바쁜 생활로 인해 자신의 몸을 살피지 못하는 점을 감안한 이번 무료검진은 많은 택시기사들의 호응 속에 진행됐으며 우편을 통해 검진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의대 교수 논문, 미 성형외과 학회지 게재돼



박홍식 교수



강소라 교수

미국 성형외과 학회지(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2004년 1월호에 성형외과 박홍식, 강소라 교수의 연구논문이 발표, 게재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논문에서는 안면골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한 비골의 골절 시에도 96.2%의 경우에 비중격 골절이 동반된다는 결과를 소개했으며 또 이중 78.8%의 환자에게 비중격 교정술이 필요했다는 연구결과를 비롯해 단순비골 골절과 동반된 비중격의 골절의 진단법 및 수술법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 비골절 환자의 치료원칙에 새로운 지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비뇨기과 최신 체외충격파 쇄석기 도입



목동병원 비뇨기과는 개원 때부터 써오던 쇄석기를 최신 체외충격파 쇄석기(ESWL)로 교체 도입하고 지난 2월6일 시연식을 가졌다.

이번에 도입된 체외충격파 쇄석기(사진)는 통증이 적고 결석 분쇄율이 현저히 높아진 점이 특징이다.

이날 시연식에는 새로운 쇄석기의 장점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환자에게 시연하는 등 많은 관계자들이 그 성능을 지켜봤다.